



동방경제포럼 소식

푸틴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주요 의제인 극동의 선도적 사회경제 발전을 포함 대통령 국정과제 이행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NTV)

푸틴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후 러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련의 양해각서 등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마즈다 자동차 엔진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 라인 가동식에 참가했다. (리아 노보스티)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극동개발기금과 Generations Fund 아시아 투자기금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Generations Fund 아시아 투자기금은 '루스아그로' Agroholding 회사와 나호드킨스키 비료 공장 등 극동 사업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소식)

인재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러시아 리더들' 콘테스트 우승자들이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한다. 새로운 리더들은 관련 세션에 토론자로 나서며,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리아 노보스티)

이번 동방경제포럼 계기로 정치평론가, 역사학자, 동양학 전문가들이 참석한 국제 러-일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간 영사 관계 수립 16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되었다. (오늘의 경제)

동방경제포럼 개막 전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와 수산청은 러시아 수산단지 발전 및 세계 대양 생태자원 공동 연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극동뿐만 아니라, 북극, 크림 반도와 남극 지역 등을 모두 포괄한다. (타스통신)

2018-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은 처음으로 포럼 공식사이트에서 로스콘그레스 재단이 운영하는 고객 개인창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객 개인창구를 이용해서 콘그레스 재단의 정보 분석 데이터 자료와 소식을 받아볼 수도 있고, 전문가로 등록도 가능하다. (리아 노보스티)

극동 소식

블라디보스토크 박물관, 극장, 교육 시설물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연간 1백만 미만의 관광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신규 문화 시설물 건축 설명회에서 올라 골로제츠 부총리가 푸틴 대통령께 보고했다. (타스통신)

푸틴 대통령은 건설부에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극동 주택 평방미터당 주택가 책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서 경제활동인구의 극동 외지로의 유출을 줄이고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스 통신)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은 항공권 디지털 예약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가까운 시일 내 승객들은 직접 항공권 체크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공항측은 업무효율과 승객편이 제고를 위한 다른 서비스들도 도입할 계획이다. (타스통신)

동방경제포럼 조직사 -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글

www.roscongress.org